침이 꼴깍…더 진짜 같은 초미니 라면·케익

박하이씨가 제작한 음식 미니어쳐 작품들. 라면은 2㎝, 옆에 놓인 깍두기는 1㎝에 불과하다.

미니어쳐 작가 백하이씨 작품 세계

5cm 밥상에 차려진 푸짐한 한끼
손톱만한 접시 위에 놓인 깍두기
⋮
양림동에 카페 '타요' 열어 작품 전시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체험 프로그램
양림동 다양한 공간 제작해 보고 싶어

미니어쳐 작품을 만드는 백하이씨

먹음직스러운 케익 4종 세트

손톱만한 접시 위에 놓인 깍두기, 2cm 냄비에 담긴 라면·파·달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식빵, 돈가스와 밥·단무지가 놓인 3㎝ 접시, 5cm 크기 밥상에 차려진 푸짐한 한끼 식사, 탁자와 의자, 커피 기계 등이 놓인 작은 카페 모형까지.

'진짜' 같은 '가짜' 음식을 보는 내내 침이 꼴깍 넘어간다. 왠지 기분이 유쾌해져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작은 카페에 앉아 차 한잔 마시고픈 기분도 든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커뮤티니 센터 옆 카페 '타요'에는 다양한 미니어쳐가 전시돼 있다. 작품들을 보다 보면 꼭 소인국에 온 듯하다. 음식 미니어쳐는 2cm를 넘지 않고 '가게' 한채도 20㎝ 정도지만 '모든 게' 들어 있다.

전시 작품은 미니어쳐 작가 백하이(38)씨 솜씨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10여년간 장사를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짬짬이 작업을 하다 작은 공방을 꾸렸고, 지난 2015년 카페와 전시 공간과 작은 체험 공간을 아우른 '타요'를 오픈했다.

시작은 인형이었다. 인형 수집이 취미였던 백씨는 바느질을 해 인형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다 침대, 책상 등 가구를 만들었고 인형이 사는 '집'을 제작했다,

미니어쳐 제작의 가장 기본 재료는 점토다. 그밖에 철사, 단추싸개, 은박지, 스티로폼, 신문 등 거의 모든 게 다 재료가 된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쉬 버리지를 못한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고물상'이라 부른다.

선물로 받은 '김밥'은 이리 저리 둘러봐도 마냥 신기하다. 지름 3mm 정도 되는 김밥 속에는 당근, 단무지, 맛살, 시금치 등 온갖 야채가 다 들어 있다. 라면 가락은 철사에 종이를 감아서 만든다.

"음식 미니어쳐는 실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집어 넣는다고 보면 되요. 음식 만드는 법과 똑같죠. 김밥을 말 때는 검은 종이를 깔고, 당근, 단무지 등 속을 넣고 돌돌 만 후 잘라 완성합니다. 저에겐 모든 물건이 재료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까 늘 궁리를 하죠.

백씨는 음식 미니어쳐뿐 아니라 다양한 작업도 진행했다. 대학이 진행한 로봇 시험 촬영을 위해 교실 등 모형을 만들었다. 또 재봉틀, 천, 의상 등을 가득 채운 가게 모형도 만들었다.

미니어쳐 만들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광주에는 거의 없었다. 백씨는 카페 '타요'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재료도 판매한다.

백씨는 최근 의미있는 작업들을 진행했다. 광주 남구 관광청이 진행하는 '양림동 근대예술여행'에 합류해 '양림동 먹거리'를 제작했다. 고기집 '한옥식당', '양림빵집', '까스까스돈까스' 등 양림동 맛집들이 그의 손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는 관광청 프로그램을 통해 '양림음식 미니어쳐' 만들기 무료 체험(사전 예약필수 visityangnim.kr)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미니어쳐는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만드는 걸 보면 놀라워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지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진짜 대단해요."

백씨는 앞으로 카페와 별도로 작품 제작과 체험 등을 진행하는 '공방'을 열 계획이다.

"먹거리 뿐 아니라 한옥 등 양림동의 공간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보고 싶어요. 기와장 하나 하나 만드는 거라 꽤 오래 걸릴 작업이지만 꼭 해보고 싶습니다."

백씨 홈페이지(blog.naver.com/doll09mama) '미니 돌'에 들어가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진짜 같은 작품들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문의 062-263-46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6㎝ 탁자에 놓인 돈까스 상차림

양림동 맛집 '양림빵집'

기옥란 작가 美 뉴욕 개인전

20일~26일 '트랜스휴먼' 연작 30점 출품

'트랜스휴먼'

더 나은 인간사회를 꿈꾸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온 기옥란 작가가 미국 뉴욕 갤러리 아르떼에서 20~26일 '트랜스휴먼의 꿈'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뤄 평화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트랜스휴먼(Trans-human)' 연작 30점을 출품한다.

트랜스휴먼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기술로 인해 뛰어난 신체적 구조를 지닌 사람이다. 기 작가는 첨단과학기술이 집중된 도시가 인간에 미친 영향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작품 '트랜스휴먼'은 사람 얼굴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색을 채워 넣어 인간 뇌구조를 표현했다. 마치 로봇같이 보이지만 동그란 눈은 인간미를 가득 담고 있다. 미래 인간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 시선이 느껴진다.

기씨는 "이번 뉴욕 전시는 세계 현대미술 흐름을 경험하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설레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씨는 전남대학교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대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5회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전 대통령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고 현재 이형회·에뽀끄회·한국신미술협회 회원, 한국미협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립 전남옥과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10월 13일까지 김현경 수묵화전

'The Bamboo'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이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전으로 '김현경' 수묵화전을 10월13일까지 연다.

김현경 작가는 아산 조방원 화백의 조카다. 이번 전시에서 도시생활 속 여유를 선사하는 대숲 풍경과 빛을 통해 내면을 표현한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작품 'The Bamboo'는 종이에 먹을 덧칠하며 수묵 깊이를 표현했다. 도시건물처럼 서있는 대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얀 하늘은 이 정적인 화면임에도 긴장감을 선사한다.

다른 작품들에서도 대숲을 관통하는 빛을 통해 수묵과 여백의 강한 대비효과를 드러낸다. 직선적이고 반복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shine'은 작가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단조롭고 현실성이 결여된 듯 보이지만 깊이 있는 수묵을 한층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김씨는 이화여대 동양화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서울 난달창작공간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